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102호  
2013. 07



씩씩한 단오풍경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썩썩한 어린이집 / 해바라기 방과후  
<http://siksikan.gongdong.or.kr/>

# 사랑고백



이승우 씩씩한 이윤서부

## 6월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람아빠에게 덜컥 약속 해 버려 이제 빼도박도 못한다.  
나는 빗쟁이이기에 후배조합원인 하람아빠의 부탁을 거절 할 수가 없다.  
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나는 빛만 있는 부끄러운 4년차다.

내가 신입조합원으로 터전생활을 시작 한 첫해 이것저것 챙겨주는 선배조합원이 고마웠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지요?”

“ 별 소릴 다 하네요 제가 해 드린 것이 있나요?”

“ 너무 잘 챙겨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전 받기만 하는 것 같아 고맙고 죄송하네요...”

“ 혹시라도 저에게 고맙고 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후배조합원들에게 그 빛은 갚으세요. 저 역시 선배조합원들에게 받은 거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졌고 감동스러웠다.

우리조합은 이런 곳이다.

이런 조합에서 벌써 4년이 흘렀다.

## 윤서 4살...나 1년차

아무것도 모르겠다. 맞벌이 하는 우리부부는 윤서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어느 날인가 바쁜 출근길에 허겁지겁 터전에 와 윤서를 데려다 놓자 윤서는 울고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윤서를 뒤로 한 채 우린 출근하기 바빴다. 5분쯤 지났을까... 윤서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울면서 출근하는 건 아니지요?”

얼굴도 잘 모르는 선배조합원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자신도 작년에 아이가 떨어지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출근하던 일이 생각이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엄마가 가고 윤서는 곧 괜찮아졌다는 말까지 전해 준다. 걱정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이 단숨에 사라졌다.

우리는 이렇게 선배조합원들의 따뜻함 속에서 1년을 보냈다.

### 윤서 5살...나 2년차

윤서에 대한 오해들로 윤서엄마가 화가 났다.

그 화를 홈페이지에 풀어냈다.

글을 쓴지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합원들이 연락이 왔다. 황금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윤서엄마를 위로 해 준다.

도와 줄 것은 없는지... 속이 많이 상했을텐데...괜찮은지 모두들 걱정이다.

우리가족은 더 이상 속상하지 않았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 해 준 조합원들이 고마웠다.

우리는 또 이렇게 조합원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1년을 보냈다.

### 윤서 6살...나 3년차 (윤서엄마가 터전이사를 한다)

터전 이사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도 윤서엄마는 늦다. 이사회 후 어김없는 뒤풀이다.

늦게 들어오는 윤서엄마에게 기어코 한마디 해 버렸다.

“빨래, 청소, 설거지, 윤서 뒤통다끼리... 내가 안 하는게 머꼬”

“터전이사!”

참 당당한 윤서엄마다.

이제야 말이지만 나의 이런 외조 덕분에 윤서엄마가 터전이사를 편안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사를 하는 윤서엄마는 이제 터전을 좀 알 것 같다고 한다. 그 동안 너무 몰랐고 그 모름으로 인해 오해도 많았다고 한다.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된다면 꼭 한번 해 보라고 한다.

(말이 씨가 되었다. 둘째가 생겼다)

### 윤서 7살...나 4년차

우리가족이 3명에서 4명이 되었다. (조합생활을 가장 길게 하는 조합원이 될지도 모른다)

윤서엄마가 둘째를 낳고 몸조리를 하면서 방모임, 회의, 청소 어느 해 보다 터전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조합원으로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음이 너무 늦지 않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터전을 사랑한다.**



## 한지붕 세가족을 2회에 걸쳐 진행한 뒤~

김영록 씩씩한 김현준부

아직 약간은 서머했을 때 한지붕 세가족 첫 번째 모임을 했었는데 이때 친해진 것이 계기가 되어 역동적인 터전살이와 최근 넉넉한 두 번째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지붕 세가족은 지오네, 해균·수아네, 그리고 우리 (김)현준네~

전체적으로 30대의 아마들이 구성원인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과 실천이 가능하였지요.

두 번째 한지붕 세가족의 장소는 지오네였습니다.

최근 열린 자연드림 요리경연대회 준우승자에 빛나는 지오엄마 김미재씨는 외모만큼이나 화려하고 성품만큼이나 정갈한 요리를 내어놓아 자연스레 밥보다는 술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해균이는 조합장인 갈고리의 덜(잘 놀아주면 통닭!!)에 흑해 2시간동안 걱정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기쁨을 토해 안정적인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직 속 깊은 이야기나 자신만의 세계를 보여주는 술자리는 아니었으나 가벼운 농담과 즐거운 만담이 어우러지면서 누구나 밝은 웃음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즐거웠던 한지붕 세가족은 단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전모임을 통한 치밀한 사전 점검도 있었고, 중간 중간 예비모임도 가졌었지요!

몸이 아프지만 꼭 참석해야한다는 자기 헌신성의 현준엄마 꽃사슴~

모든 일정을 조율해준 해균·수아아빠 갈고리~

갈고리의 독주를 막고 안정감을 만드는데 최고인 해균·수아엄마 지구~

최강의 안주와 밥을 준비해주신 지오엄마 아가씨~

너무 시끄럽게 해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항의밖에 더 있겠냐고 넉넉하고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집주인의 면모를 과시한 지오아빠~

한 것 없이 술만 축낸 저~

그리고 너무 밝게 놀아준 아이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눈빛만 봐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현준이에게 감사하며 이후 저희 집에서 진행될 한지붕 세가족!

이분들과 함께라면 김치에 소주잔이라든 욱먹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이가 밝아지니 어른도 밝아지고, 아이가 친해지니 어른도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익숙하던 저에게 친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술자리는 참으로 오래간만이라서 터전이 좋고 생활에 힘이 난답니다.



## 보름달 소개

조미소 씩씩한 보름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독수리 방과 5살 보석방 담임을 맡게 되었고, 터전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지 딱 두 달되어가는 신입교사 조미소, 별명은 보름달 인사드립니다.^ ^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89년생 올해 계사년 뱀띠로, 2012년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이구요. 대학을 다니기 위해 대구에 집을 둔 지, 5년이 다 되어가네요. 통영 다들 한 번씩 와보셨죠?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보면 구수한 사투리가 스멀스멀 들릴 것이 예상됩니다. 혹시, 저랑 대화 하시다가 억양 때문에 이해 못하실 수 있으시니 그때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시면 되요~ 하하.



씩씩한 어린이집은 첫 직장이구요. 졸업 후, 아동폭력예방 전문 강사를 하고 지내며 여러 스펙을 쌓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쯤에, 보조교사 제안을 받았고 평소 애들 좋아하니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였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저희 어린이집은 애들이 선생님한테 반말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반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너무 버릇없는 걸 아닐까?”라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오히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니 아이들이 쉽게 표현하고 다가오네요. 며칠 함께 지내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친근하게 대해주는지... 한 몇 년을 함께한 사람처럼 대하네요. 아이들의 친화력에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5월 중순 즈음, 제가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 환경에 대해 많이 민감했었어요. 특히,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던 때라서 목이 더 악화된 것 같아 많이 민감했었죠. 그런데 나들이 갔는데 아이들이 우두둑 꽃을 따더니 꿀을 쪽쪽.. 맛보라고 주는데 꽃가루 있어 싫다고 애들 주는 거 거부하기도 미안하고, 맛을 보았죠. 꿀맛이 나긴 하는데 조금은 짹짹했습니다.

터전으로 가는 길에 돌나물이라며 알려주는 아이보고 또 놀랐고요. 진짜 그 때 속으로 “애들.. 뭐야.. 꽃을 따서 꿀을 먹어보라하지를 않나, 나도 잘 모르는 돌나물은 또 어찌 알고 말하는 것인지.”라고 생각 했었어요.

여기에선 오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며 전반적인 교육내용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 후에 정교사 제안이 들어왔고, “아이들, 교사, 부모님 그리고 공동육아” 거부 할 수 없을 여러 가지 매력들을 보여주셔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이들이 초임인거 알고 텃세는 부리지 않을까? 담임 맡았는데 아마에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름 부르면 보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이 내말이 들리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보조교사 때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을 지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들로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터전에 왔을 때 생각나네요. 1층에 모래가 많아 쉴 틈 없이 쓸고 싶었어요. (집이 그닥 깨끗하지도 않은데,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유난 떠는지..). 그 때 누군가 “애들이 다시 또 놀면 흙이 또 생기니깐 힘 많이 빼지 말고 애들 잘 봐 주세요~” 라고 말씀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흙이 제 눈에 너무 보여서 집에 가서도 흙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한 달 이 지난 후 지금은 흙은 커녕.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흙이 없으면 애들이 논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허하다고 해야 할까.. 터전에 적응하고 있다는 좋은 뜻이겠죠?

한 달 살아온 거 되돌아보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점점 변화된 모습들이 보였고 고민거리가 생겨 고민도 해보고 아무쪼록 6월 한 달, 탈 없이 한 달을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방을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지내다보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보며... 다음 달 기대됩니다.

글 적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보조교사로 채용되었을 때도 그렇고 정교사가 되었을 때도 터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해주셨던 분들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초임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테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피드백 받아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

# 그만던 김밥은 누가 다 먹었을까

류정하 씩씩한 강유채모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20시. 오늘은 홍보소위 회의하는 날. ‘저 사람이 누구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멋쩍은 듯 웃는 그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게다가 맨발이다. 재빨리 시선을 수습하고 익숙한 체 한다.

“어! 형부~”

“형부”라는 호칭도 어색하지만 “기연이아빠”라고 부를 순 없는 노릇이다. 협동조합 TF팀 회의도 오늘이란다. 남편 미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남편은 오늘도 바쁘다.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 형부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네 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정사각형, 나의 아이디얼 신유언니(기연, 유설엄마) 옆에 서 있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정사각형이 떠올랐다. 돌잔치 주인공 기연이가 돌연 초등학교생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정사각형이었다. 2013년 5월 5일, 아빠들의 마술공연이 시작되기 전,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다.

하트(수하모)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흘끔거린다. 친한 사이 같다. 터전살이 때 마실을 약속했었던 가 보다. 나도 덩달아 1년 전 지나가면서 한 얘기(우리 집에 놀러와)를 들먹이면서 끼여 본다. 열흘 뒤, 하트와 나는 기연이네에서 다시 만났다.

소통특별기획  
‘징검다리소통’  
인터뷰

**무궁화\_** 언니,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형부 마술이요. 언니가 추천했죠?

**달팽이\_** 아니. 진짜 내가 안했어. 명단을 보기 전에, (기연이 아빠가) 문자를 받았다는 거야. 마술팀오라고 문자왔더라하면서... 이거 누구에게나 다 보내는 건가 보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 그래서 자기는 무시를 했고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보니까 엄선된 명단이라고 홈페이지에 뒀잖아요.

**하트♥\_** 엄선된 명단이라는 그 내용이 너무 웃겼어요.

**달팽이\_**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이는 거야. 진짜 핵심 멤버들, 분위기 메이커들,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좀 처지는 아빠들... 정말 나는 아니었어. 기연이아빠가 안한다고 할 거니까... 안한다 할 줄 알았는데 마술모임 가야 된다는 거야.



**하트♥** \_ 너무 좋았죠?

**달팽이\_** 내가 강하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 (웃음) 첫모임을 병원에 일이 있어서 늦게 갔고, 다음부터 “기연아, 니 해바라기 언제까지 할 거가?” 이렇게 늘 물으면서 가더라고. 가서는 뒷풀이한다고 늦게 오고... 연습 30분, 뒷풀이 2시간 그러잖아... 기연이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소박한 삶이거든.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만 하겠다... 한 때는 대학교 동기회도 많이 나가고 과에서 친구들과 잘 노는 부류였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지. 가서 매일 술 먹고, 하는 얘기 똑같고. 발전적이지 않다 아니면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임이나 시간을 다 끊으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지금 자기 생활이 심플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안할 줄 알았는데, “주어진 건데 어떡해?!”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이 정하(무궁화) 니가 아까 말한 ‘정사각형’으로 보여 지긴 싫은 거야. 그래서 나가게 되고,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 나보다 터전소식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트♥무궁화\_** 깔깔깔

**달팽이\_** 전에는 누구아빠, 누구엄마 전혀 모르다가... “어떤어떤 아빠는 얘기 안되더냐?”하고 물으면, 너무 확 물으면 안 되고... (웃음) 아직 완전히 긍정하거나 하지는 않는...

**하트♥** \_ 내가 무관심하면 아빠가 바뀌는 것 같애. 준서 씩씩한 보낼 때, 수하아빠는 교사들살이 때만 교사 얼굴, 아마들 얼굴 봤지, 아무도 수하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계기가 되었냐면, 술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아빠들 술자리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까 청소를 하러 가더라고. 그 날 이후로(터전 3년차) 내가 청소 거의 안했어요. 얼마나 까칠했는지... 터전에 보내게 해주는 것만으로 유세를 떨었어요.

**달팽이, 무궁화\_** 나도나도!!!

**하트♥** \_ 기연이엄마 말 들으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

**무궁화\_** 나는, 마술 말이에요... 형부가 할 리가 없다. (공지사향에) 적혀 있지만, 나는, 형부는 안 한다 아예 단정을 지었어요.

**하트♥** \_ 나도... 기연이아빠가... 의외였어요.

**무궁화\_** 나는 너~무 놀라운 거야.

**달팽이\_** 나는 아직도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푸시(push)하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미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요즘 담배도 계속 피고 있잖아. 낮에 피진 않는데, 술자리에서 아빠들 피면 “나는 안 피니다.” 그 이미지가 싫은 거지... 웃기제?

**무궁화\_** 지금 얘기 들으니까 유채아빠랑 비슷한 부분이...



**하트♥\_** 유채아빠라기보다 남자들의 비슷한 생각. 남자들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은 평생 동안 이해하지 못할.

**달팽이\_** 뭔가 멋져 보이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

**하트♥\_** (기연아빠)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무궁화\_** 마술공연 다음에 TF팀?

**달팽이\_** 어, 거기는 내가 밀었어.

**무궁화\_** 아, 이제 정말 형부는 완전히... (공동육아에 받을 푸욱)

**달팽이\_** 아니야... 마술할 때 느꼈는데, 기연아빠가 그런 이미지를 깨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마술공연 후에) 기연이는 저렇게 해바라기에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 기연이아빠가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해. 늘 사람들하고 관계가 술 먹고 이런 건 싫은 거지. 일의 성과를 내거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고... 터전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TF팀은) 진짜 깊은 얘기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고 적성도 딱 맞고 좋은 거 같다고 하니까, “그럴까?” 그래. “내가 신청해주께”하고 그날 바로 내가 수아아빠한테 문자를 넣었어. 근데 막상 또 (모임) 첫날이 되니까 “내 꼭 해야 되나?” (웃음)

**하트♥\_** 아난데... 그 날 아주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마실 오라고 얘기했는데...

**달팽이\_** 가면 또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알게 모르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하트♥무궁화\_** 깔깔깔

8시가 넘었다. 7시간 쯤 수다다. 전화가 온다.

**달팽이\_** (기연아빠가) “내 없어도 되나?” 라고 묻는데?


**하트♥무궁화\_** 당연히 안 되지!!!!


**하트♥\_** 이제 더는 못 먹겠다.

**무궁화\_** 진짜 많이 먹었어. 김밥은 이래서 문제야.

**달팽이\_** 내가 저 밥술 가득 밥을 두 번 했거든. 우리 두 술 먹었데이.

**하트♥무궁화\_** ..... 애들이 잘 먹더라.

to.  ~~~ 마감시간이 지나서 언니에게 검사 못 받고 바로 글 넘겨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야하는데...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싸 주면 안 될까요? ㅎㅎ

to.  ~~~ 먼저 자리 잡으셨으면 유채아빠도 좀 챙겨주세요!!! 언니랑 잠깐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내년에 같이 이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별명도 빨리 만드세요~

현재가 가장 아름답다



그들1은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했고  
그들2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했다.

혹은

그들1은 미래를 보지 못했고

그들2는 과거를 보았다.

그들1의 미래는 그들2의 현재고

그들2의 과거는 그들1의 현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현재다.









좋은 계절, 좋은 시절, 좋은 풍경

ㅎㅎㅎ

## 명랑홍보소위, 나와랏!

▶언제: 2013년 6월 12일 8시

▶어디: 짹짹

▶누구:  (짹구),  (작은무지개),  (달빛),  (무궁화),  (꽃사슴),  (하트),  
 (토닥토닥), 손님  (갈고리)

▶어떻게: 수하엄마가 방금 내린 아이스원두커피와 루다엄마의 오미자효소를 함께 나누면서~^^

### ▶명랑홍보소위회의의 주요 안건

- I. 나눔포털, 자원봉사 수요처로 우리 조합 등록 여부
- II.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소식지, 너 누구니?>와 7월 소식지 기획
- III. 홈페이지 이사에 대해

## I. 나눔포털은 미처 녹음하지 못해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나눔포털 등록 취지: 우리 조합을 밖으로 잘 알리는 것이 홍보소위의 큰 역할이다. 그 시도로 “더하고 나누는 나눔포털” 사이트에 우리 조합을 수요처로 등록해서 자원봉사할 분들(주로 학생들)을 모셔서 외부에 우리 조합의 존재도 알리고, 혹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를 합류시키는 좋은 선례를 남겨보자

▶자원봉사의 좋은 예: 지구(수아엄마)학교 학생들(복숭아, 딸기)의 꾸준한 예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훈훈한 관계형성

▶교사회와 의논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

### ▶예상되는 문제점:

1. 아무나! 자원봉사자로 합류했을 때 오히려 애들에게 부정적이다.
2. 선생님들께서 자원봉사자를 선별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 ▶조합에서 꼭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나?

1. 해바라기-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아이들과의 과학실험 등등
2. 짹짹-긴 나들이, 벽화그리기, 김장하기... 주로 몸으로 자원봉사하기

### ▶나눔포털 사이트에 우리 조합을 등록시키는 일을 누가 대행할 것인가? :



현준엄마 당첨! 기꺼이 몇가지 서류 준비해서 등록해 주시기로~ 짹짹!

## II. <징검다리 소통 & 소식지>



제 생각엔 저희가 징검다리를 하고 있지않나!??



이전의 소식지가 교육활동과 교육내용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우리 조합원으로 옮겨서 우리 조합원 사이에 소통을 시켜주는 징검다리역할과 같은 소식지가 되었으면...



그 말은 지금까지는 터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실었다면 앞으로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식지 안으로 댕겨서 담아내자...



소모임활동 집중취재가 참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식지가 아이들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들의, 조합원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어떤 방모임후기를 보니까 게릴라인터뷰를 하자는 제안도 있던데...

**모두**

게릴라인터뷰 좋은 것 같아...^^



게릴라 인터뷰가 우리가 나아갈려고 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요?



터전에서 잘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하루를 따라 가보는 식으로 취재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조합원들간에 만날 기회를 주고, 우리 들간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게 정말 소통을 위한 거지...



우리가 만남의 주선자가 되는구나...



생각해보니..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대되고 설레는 거잖아요. 다음에 내가 뽑히는게 아닐까?^^



예를 들어, 씩씩한 사람과 해바라기 사람이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른 거 필요없이 홍보소위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많은 질문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너무 괜찮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너무 부담될 수도 있고, 매치메이킹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회의하는데 우리가 가서 발췌하는 것도 괜찮을 듯



숙제처럼 하지 말고, 처음 한두 번은 우리가 가서 풀기도 하고... 부담을 덜 주는 선에서 시작해서 누구네 집에 가보는 방법으로... 7월에 당장 징검다리 소통 프로젝트 시작 해볼까요?



아까 즉석에서 기연이네로 부터 초대받았는데...!



기연이네 좋아요. 아레께 한지봉 네가족 다녀왔거든요. 기연이네 너무 좋아요. 유채네랑 저희랑 초대받았거든요.



이전부터 왜 초대한다 말만해놓고 초대안했냐고 형부가 언니한테 전화해서...

**모두**

응? 뭐라고??형부? 관계가 어떻게? 어떻게 아는데요?



아! 모르시는구나... 학교 때부터 언니랑 잘 알고 있었어요. 기연이 엄마하고 저하고!

**모두**

아? 진짜?? 오~~





징검다리 소통하고 홍보소위의 녹취풀기 두 꼭지! 그럼 홍보소위를 풀어라~ 이렇게?



제목 정하는 거 루다아빠에게 부탁하자. 아주 쉽고 편하게 톡톡 던지는 게 너무 좋더라~



루다아빠 말나온 김에 루다부 포토에세이도 실어



옛날에 예전 소식지에 “꿀비생각”이라면서 형석이아빠가 만화를 실었거든요. 그 아빠가 직접 그린 만화인데...



그 때 그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삽화와 내용은 간단하면서 단순한데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인물의 특징이 특정 조합원과 겹치면서 다들 호응이 너무 좋아 매력에 넘어 갔었어요^^



아니야, 내가 했다고!



아~~내가 먼저 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했어...

아~~~~~ -.-



(그렇긴 말건 간에 열심히 후기 적고 있는 꽃사슴)



갑자기! 1층에서 협동조합 TF팀 회의하던

조합장님 등장! 두둥~

**모두** 들어오세요~ TF팀 첫모임 어땠어요?



완전 좋았죠!

**모두** 오늘 회의 알려줘요~~우리 녹취할건데 ^^



원래 모으려고 했던 TF팀 성격은 협동조합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여기 모인 TF팀 사람들 말이 다 달랐어요. 야~...



빨리 집에 가자~~ 가자~~~



조합장님께서 긴 시간 홍보소위들에게 회의내용을 아주 상세히 프리핑해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 수만큼이나 의견들도, 목소리도 다 다르다는 걸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ㅋ  
갈고리~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TF팀 회의 후기를 참고하세요

### Ⅲ. 홈페이지 이사



NAVER가 나올까? DAUM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우리 세대는 다음이 편해요. 그런데 카페들이 NAVER에서 요즘에 더 활성화되어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쪽이 어느 쪽인가했을 때 다음보다는 NAVER일 것이다. 그리고, NAVER가 사생활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NAVER는 클릭 한번으로 검색부분을 허용, 비허용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NAVER에 점수를 더 주겠다는거였어요. 근데 또 보면, 표로 만들어진 것들, 식단같은 것은 NAVER가 현재 공공교 홈페이지보다 불편한거예요. 휴대폰에서 보기도 불편하고...



DAUM의 또 다른 장벽은 현재 소모임, 이사회 카페들이 대부분 NAVER에 있어 연결이 힘듭니다. NAVER홈피에서는 소모임, 이사회 카페를 다 넣을 수 있는거예요. 전부다.



동맹카페로 묶어버리는거죠.



DAUM과 NAVER의 문제는 기술적인 얘기를 다 나눈 뒤에 말씀드릴게요~ 현준엄마, 나눔포털 도와주기로 하셔서 감사하고요, 유채엄마는 디지털과 별로 안 친하신데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니 기꺼이 도와주기로 하셔서 감사하고요~

홈피이사는요, 뭐 해보는거죠! 짠~하고 나오면 안되고, 미리 공지해서 알려드리고...

저는 많은 준비를 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다 해서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요즘 바뀐 생각은 준비하는 과정도 오픈하자! 같이 와서 보고...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만약 우리 스스로도 공공교가 낫지 않느냐고 했을 때 우리의 상실감이 너무 클 수 있으니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할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좋은 거고, 손해 볼 이유가 없거든요. 사업계획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오픈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생각돼요. 일단 검색에 노출되면 글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지므로 게시판 및 멤버 등급을 구분한 뒤 시범운영을 해봐야 할 듯. 그리고, 새홈피에 익숙하기 못한 조합원들은 실수할 수 있으므로...계도기간이 필요할 듯



그건 꼭 필요하다면 조합원교육시간에 자세히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자~~11시가 넘어습니다요~~감시다 ^^

● 사진으로 보는 우리들 이야기





# 편지상을 마감합니다...

## • • 짱구(하람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사랑임을. 그것이 소통이자 서로에대한 이해라는 것도 알아가는 시간.’  
지난 3월 꽃사슴의 편집후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게 되는 소식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꺼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 • • 토닥토닥(루다모)

지난 5월호에 우리의 물방울, 소정엄마의 이름을 명예조합원과 착각해버린 대사고를 쳤습니다.  
다시한번 더 죄송하고요, 대신 꼭 이 빛을 갚으리라 약속했답니다.^^  
대단찮은 편집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안테나가 아이들과 아마들, 교사들에게로... 심지어 이미 다 친해져 버린 느낌입니다.ㅏㅏ  
소통의 징검다리, 담백하고 솔직한 글로 7월호 열었습니다.  
질은 여름, 건강하십시오!

## • • 무궁화(강유채모)

‘마을만들기’ 요즘 우리의 대세화두죠? 소식지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합니다.

## • • 달빛(서준모)

교육평가 및 일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호부터 소식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식지가 우리 조합의 소통의 창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102호

**발행일** 2013년 7월 1일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발행인** 정범철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전화** 053) 791-6879  
**주소** (우)706-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MEMO

소식지 혹은  
아무 얘기나...